

2011 KEPIC-Week



▲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2011 KEPIC-Week' 행사(8. 30 ~ 9. 2, 제주)가 전문분야 인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 박천진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선진 외국의 표준과 대등한 수준의 KEPIC을 만들어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 KEPIC의 제고된 위상과 거듭된 발전을 염원하는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한국남부발전 남호기 사장



▲ 행사에 참가한 전력인을 환영하는 기념식 행사가 만찬과 연회 등으로 진행됐다.

Advanced Standard & Global Partner



▲ 'KEPIC 2020 비전과 추진계획'
(안호현 대한전기협회 KEPIC처장)



▲ 후쿠시마 사고에서의 전기 및 계측제어 계통 동작에 대한 예비 관찰
(Mr. Gary Johnson, IEC SC 45A, Chairman) 등 3편의 합동강연이 펼쳐졌다.



▲ '한국원전 수출과 세계원전 추진현황'
(김태우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장)



▲ KEPIC 관련 유공자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이 수여되었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양성호 실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되고 있다.



▲ 재료연구소 조경목 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는 박천진 상근부회장



Advanced Standard & Global Partner

◀ 한수원, 두산중공업 등 총 22개 업체 30여개 전력산업 전시부스를 Tour하고 있는 내외 귀빈



▲ 2011 KEPIC-Week에 처음으로 반영된 '공조워크숍'은 새로운 관심을 끌며 진행됐다.



▲ 최근의 인증확대 추세를 반영하듯 'KEPIC 인증업체 세미나'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국내 전력산업 도약의 장 ‘KEPIC-Week’ 성료

● 원자력 분야 전문가 등 1,000여명 참석

대한전기협회는 지난달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사흘간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2011 KEPIC-Week’ 행사를 개최했다.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대한전기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Advanced Standards&Global Partner’라는 주제로 국내·외 전력산업계 인사, 관련 전문 인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 발전기계 등 8개 분야에서 1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최적화된 세계표준 적용을 목표로 한 ‘KEPIC 2020 비전 및 추진방향(안호현 전기협회 KEPIC처장)’이 제시되었고, ‘후쿠시마 사고에서 전기 및 계측제어 계통 동작에 대한 예비 관찰(Mr. Gary Johnson, IEC SC 45A, Chairman)’ 등 비중 높은 합동강연을 통해 선진 외국의 최신표준 동향과 전망이 발표되었다.

이밖에 ▲원자력국제표준화 워크숍 ▲KEPIC 기기검증 워크숍 ▲KEPIC 인증업체 세미나 ▲해외 표준 관련기관 초청 및 특별강연 등의 주요행사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기획 세션으로 마련된 △면진설계 워크숍 △공조 워크숍 △용접 품질관리자 시스템 워크숍 △스마트그리드 기술세션 △원자력 표준 코디네이터 워크숍 등을 통해 행사의 깊이와 전문성·다양성 측면에서 관련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편, 기념식 행사에서는 KEPIC 유공자에 대한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두산중공업 최경식 차장 등 18명), ▲공로패(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양성호 실장)가 수여됐으며, 감사패(조경목 재료연구소 소장)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국내 전력산업계 최대 행사로 자리매김에 성공한 KEPIC-Week는 우리나라 민간단체 표준인 KEPIC(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Code)의 전력설비 적용 확대 및 세계화를 위한 발전방안 모색, 국제화를 위한 국내·외 관련기관 정보교류, 전력산업계의 협력분위기 조성 등을 목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이 9번째 행사이다. KEA

2011 KEPIC-Week 전력산업 전시회 참가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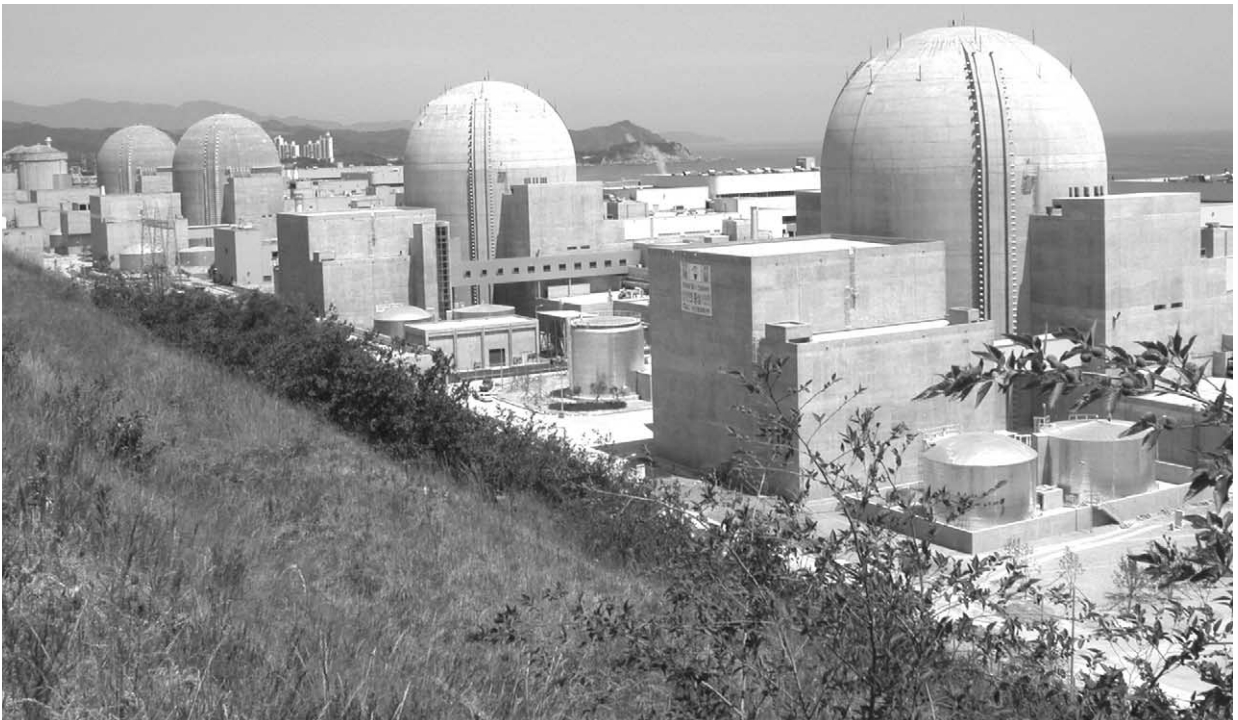

한국수력원자력(주)

대 표 자	김종신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서울사무소)
T E L	02-3456-2114
홈페이지	http://www.khnp.co.kr


한국수력원자력(주)은 4개 발전소 21기의 원자력발전 설비와 10개 발전소 27기의 수력발전설비, 7개 발전소 16기의 양수발전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발전회사이다.

국내 전력생산량의 약 31.3%를 담당하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공헌하고 있다. 한수원은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운영 및 건설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9년 12월 UAE에 사상 최초의 한국형 원전 수출을 이룩하는 등 세계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또한 고리풍력, 영광솔라파크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인천만 조력 등 다양한 분야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전시 품목 _ 신형경수로 APR1400



2011 KEPIC-Week 전력산업 전시회 참가업체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플랜트 전문기업으로서, 지난 40여 년간 전 세계 30여개 국가에 발전, Water 등 각종 플랜트 설비를 공급하며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해왔다.

지난 해에도 사우디 라빅6 화력발전소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수담수화 플랜트인 라스아주르 프로젝트 등 중동, 인도에서 초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 두산중공업은 13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수주 실적을 올렸다. 또한 순수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한 신형 원전 APR1400 주기를 신고리 3,4호기에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원전 3대 핵심 기술의 하나인 원전제어계측시스템(MMIS)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 UAE 원전 프로젝트에 설치할 원전 주기기도 제작 중에 있다.

또한 유럽, 미주 지역을 총괄하기 위해 설립한 두산파워시스템(DPS : Doosan Power Systems)은 유럽과 미주 발전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2009년 인수한 스코다파워도 시너지 효과를 올리는데 일조하고 있다. 글로벌 생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하여 베트남 생산공장에서는 발전, 해수담수화, 운반 설비 등을 제작하고 있으며 루마니아의 두산IMGB에서는 발전설비 소재를 생산하고 있다.

미래 성장 동력인 친환경 그린에너지 분야에서는 3MW 해상풍력시스템인 WinDS3000TM 풍력시스템의 첫 수주에 성공하는 한편 두산바콕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설비의 설계·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발전과 Water 분야에서 글로벌 Leading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비전 아래 두산중공업은 2020년 매출 30조 원을 달성해 포천(Fortune)지 선정 글로벌 300위권 내의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2011 KEPIC-Week 전력산업 전시회 참가업체

DAEWOO E&C 대우건설

대우건설은 1973년 창사 이래 40여 년 동안 대한민국 건설산업을 선도하며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 기반시설을 구축하였고, 최고의 디자인과 기술력이 적용된 친환경 주거/비주거용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또한 화력, 원자력, 조력 등 발전설비와 LNG탱크 등 대규모의 산업설비 시설을 건설하여 명실공히 국가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대우건설은 세계 최첨단 침매공법을 적용한 거가대로의 침매터널, APEC정상회담이 열렸던 누리마루, 세계 최단 기간 시공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국내 최초로 해외에 수출한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대규모 정유저장 시설인 아랍에미리트 르와이스 정유가스저장시설, 고품격 프리미엄 푸르지오아파트 등 사업분야별로 탁월한 시공실적을 바탕으로 토목, 건축, 주택, 플랜트 등 모든 부문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속적인 기술개발 노력과 최고 수준의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2006년 이래 3년 연속 국토해양부가 선정하는 시공능력평가 1위에 등극해 국내 최고 건설사의 위상을 확립하였다.

대우건설은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고의 기업가치를 창출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켜나가는데 기여하는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무이행을 통해 기술과 인재로 최상의 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E&C 리더' 로 도약하고 있다.



2011 KEPIC-Week 전력산업 전시회 참가업체



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기술은 원자력 주기기 설계(NSSS)와 발전소 종합설계(A/E) 등 원전 설계의 핵심 기술을 모두 보유한 세계적인 원자력 설계 전문 기업이다.

지난 1975년 대한민국 발전소 설계기술 자립을 목표로 설립된 한국전력기술은 올해로 창사 36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설립 초기 관련 기술이 없어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선진 엔지니어링 기업들과 제휴를 맺거나 파견 교육을 통해 어깨 넘어 묵묵히 기술력과 노하우를 익혀온 한국전력기술은 1980~1990년대 원전설계 기술 자립에 성공한 뒤 2000년대 이후에는 선진국의 경쟁회사에 기술을 역수출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지속적인 원전설계와 운영을 통해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설계, 건설, 운영, 관리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이제는 설계 기술의 자립을 넘어 역수출까지 가능한 글로벌 기술력을 보유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국전력기술이 설계기술 국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개발한 한국형표준원전(OPR)은 1990년대 중반부터 울진 3·4호기를 비롯 영광 5·6호기와 울진 5·6호기 등에 적용되었다. 이어 OPR의 설계기술과 경험을 근간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킨 개선형 한국표준원자력발전소(OPR1000)와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차세대형 원전으로 평가 받고 있는 우리 고유의 대용량 원전 모델인 신형경수로(APR1400)를 잇달아 개발하였다.



2011 KEPIC-Week 전력산업 전시회 참가업체



IEEE는 미국의 전기, 전자분야 기술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비영리 기술협력기관으로 항공분야, 컴퓨터 및 통신 분야에서부터 생체공학, 전력 및 전자 분야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회원활동을 통해 기술협력을 선도하고 있다.

160여개 국가로부터 약 375,0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10개 지역에 324개의 지부가 설치 운영중이다. 또한 80개국의 대학 내 1,789개의 학생지회를 설치 운영 중이며 약 80,000여 명의 학생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38개의 단체와 7개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1,300여 개의 기술표준이 개발 완료 또는 개발 중이다.



2011 KEPIC-Week 전력산업 전시회 참가업체



Tube Fitting & Valves 전문 제작업체로 입지를 굳혀 자사 브랜드인 SUPERLOK과 SPIDER 분배전반으로 반도체, 석유화학, 해양플랜트, 건설 및 발전부문에선 선도적인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1 KEPIC-Week 전력산업 전시회 참가업체



ATE Gas Camera

- 적용분야
- 산업용 화학 가스 모니터링과 예지보전
 - 군사용과 민간인 보호용 가스 감지
 - 환경오염 방지와 감소를 위한 모니터링
 - 가스 누출 감시 및 탐지
 - 화학테러 징조 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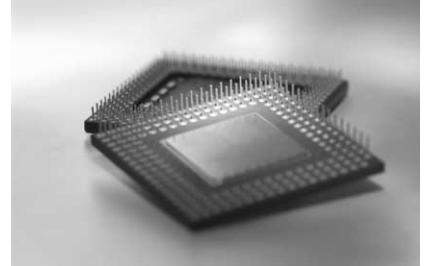
Multi Gas Camera는 광범위한 감시지역, 접근위험지역, 복잡한 구조물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고, 가스 누출에 대해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가스 누출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동시에 여러 종류의 누출 가스를 자동으로 판별해 주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이다.



2011 KEPIC-Week 전력산업 전시회 참가업체

kti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산업 기술의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66년 설립된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으로 지난 40여년 간 시험평가기술개발 및 국제품질인증획득 지원을 수행해왔으며, 산업현장에 필요한 각종 기술지원 업무에 주력하여 종합시험인증기관으로 발전해 왔고, 산업체의 기술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2011 KEPIC-Week 전력산업 전시회 참가업체



뷰로베리타스

뷰로베리타스는 180년 전통의 프랑스 검사 회사이다. 전세계 40,000명 이상의 직원 및 140개국 900개 이상의 오피스를 바탕으로 세계 각지의 원자력 프로젝트 및 비원자력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hop / Site Inspection • ISI / PSI • Design Review • EIA
PM / CM • 공인검사 • HSE • Supplier Assessment

국내에서는 300명의 직원이 지난 30년 동안 선급, 산업 플랜트 검사, 건설 서비스, 시스템 인증, 식품 검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1 KEPIC-Week 전력산업 전시회 참가업체

SGS KOREA SGS

SGS는 검사, 검증, 시험 및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선도 기업이다.

1878년 설립된 SGS는 국제적으로 전문성과 정직성에서 최상의 표준을 제시하는 기업이다. 64,000여 명 이상의 직원들과 1,250여개의 사무소, 실험실을 단일 네트워크화한 SGS는 시장 선도 역할 수행은 물론 고객과 사회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에스지에스(주)는 전기전자, 방위산업, 원자력, 자동차 등 모든 제품의 H/W 및 S/W 평가, 신뢰성 시험 및 분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고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Total Solution을 지원하고 있다.



2011 KEPIC-Week 전력산업 전시회 참가업체



(주)프론틱스

계장화 압입시험기(AIS2100, AIS3000)

- 계장화 압입시험법을 이용한 비파괴적 기계적 물성 평가시험 기기
- 평가항목
인장강도, 항복강도, 잔류응력, 파괴인성, 비커스경도, 탄성계수
- 관련 규격
KEPIC MEF A370, ISO/TR29381, KS B0950, KS B09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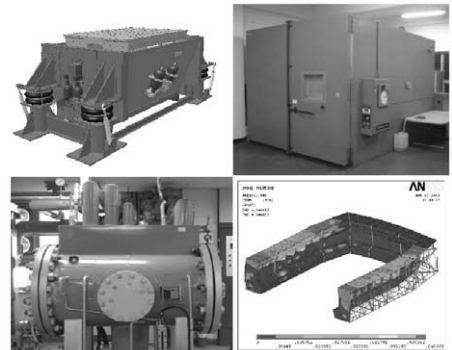
2011 KEPIC-Week 전력산업 전시회 참가업체



(주)새한티이피

원자력기기 검증 선도 기업

(주)새한티이피는 국내 최대의 민간 전문검증기관으로서, 국내 최초의 원자력검증사업 허가(과학기술부) 취득 및 검증기관 최초로 KEPIC 인증(대한전기협회)을 취득하였다. 원자력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는 검증기술연구와 최신기술 개발로 세계최고의 검증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1 KEPIC-Week 전력산업 전시회 참가업체



(주)삼미정공

(주)삼미정공은 화합, 정성, 창조를 기업이념으로 제품 생산과 운반에 필요한 가장 합리적인 자동화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연구개발 중심형 회사이다. 특히, 자동차 제조용 설비는 물론 자동화 관련 운반 설비, 물류 설비류 등에는 많은 경험 기술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과 공법개발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생산에 적용된 다수의 특허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2011 KEPIC-Week 전력산업 전시회 참가업체


(주)삼영이엔지

“공학 기술의 미래는 삼영이 만들어 갑니다.”

(주)삼영이엔지는 부단한 기술개발 노력과 첨단장비 보유, 임직원의 합심된 노력으로 열처리분야 & 爐(Furnace)개발을 개척하고 있다. 열처리로를 이용한 고용화 열처리, 불림작업, 응력제거 풀림 등의 열처리와 대형 탱크의 가스열 처리, 튜브벤딩 및 열처리, 열처리로 제작 및 내화물 시공, 압력용기 제작 및 설비 유지보수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Stainless Steel Solution Annealing 열처리, Gas Firing 열처리 부문은 세계 제일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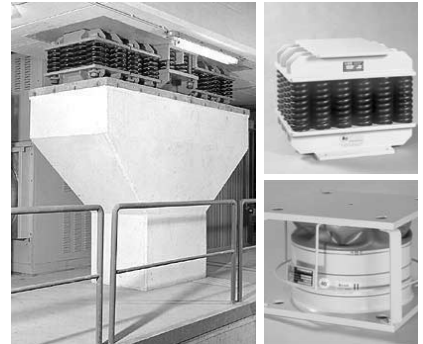
2011 KEPIC-Week 전력산업 전시회 참가업체


GERB

GERB Vibration Control Systems Berlin, Germany, info@gerb.de
100년 전통의 진동방진 및 소음제어 전문기업. (1907년 설립)

[적용분야]

- ◎ Power Plant 설비
 - 가스 & 스팀 터빈 발전기 • 보일러 급수 펌프 • 콘덴서 • Floating Floors
- ◎ 프레스 및 기계장치 (분쇄기, 측량 및 시험기계)
- ◎ 조선분야, 교량, 철도, 건물, 지진
- ◎ 기술설계 (engineering, supervising, installation)
- ◎ 한국 대리점 : 청우물산(주)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416-4번지 TEL : 031-351-4422



2011 KEPIC-Week 전력산업 전시회 참가업체


용성전기(주)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용성전기

지난 30년을 한결같이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최우선 목표로 신제품 개발과 국내 · 외 시장을 개척해온 용성전기는 국내를 넘어 세계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용성전기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제품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원자력 품질보증(KEPIC-EN) 등급(제품 및 품질 시스템)을 획득한 바 있다.



콘택터, Ø22류

2011 KEPIC-Week 전력산업 전시회 참가업체

EG EG TECH

Video Microscope System

Macro에서 Micro까지 눈으로 볼 수 없는 검사영역을 간단한 조작으로 확대 관찰 및 분석 가능한 시스템이다.

1. 접촉·비접촉 검사방식 사용 가능
2. 다양한 배율렌즈 지원
3. 손쉬운 이미지 저장 및 처리
4. 시료 검사 후 PC를 이용한 이미지 저장, 정밀측정 및 편집의 용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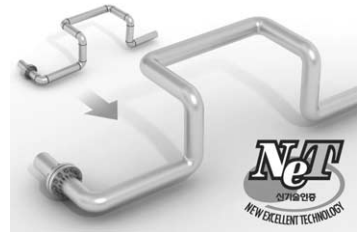


2011 KEPIC-Week 전력산업 전시회 참가업체

SIM (주)성일에스아이엠

소반경(1.5DR/2DR) 벤딩 기술로 NeT 취득

(주)성일에스아이엠은 30여년 전 국내 최초로 고주파 유도벤딩기와 기술을 국산화한 후, 원자력·화력 발전소, 석유화학, 조선, 해양, 가스라인 등 다양한 분야에 공급해 오고 있다. 진보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품질의 고주파 벤드를 생산, 보급함으로써 얻은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연구로 최상의 제품을 보급하고 있다. 특히 NeT 취득 기술인 ‘소반경(1.5DR/2DR)’ 벤딩은 기존에 문제되었던 두께 감소율, 벤딩 형상 문제를 개선하고 용접 개소를 감소시켜 획기적으로 향상된 품질, 기계적 건전성을 제공하고 있다.



2011 KEPIC-Week 전력산업 전시회 참가업체


YONGHYUN
BASE MATERIALS 용현BM(주)

용현BM

용현BM은 30년 이상 금속소재단조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고 있는 현진소재로부터 2002년 물적 분할을 통하여 창립된 금속소재단조 전문기업으로서 PIPE, TUBE 등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기업이다. 기술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금속소재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2010년 제2공장을 건설하여 국내 최초로 기존의 자유단조가 아닌 한 단계 진화한 멀티단조시스템인 Radial Forging 설비와 그 동안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했던 Seamless Pipe, Mother Tube 등의 제품 생산이 가능한 Piercing 설비(Rotary Piercing)를 도입하였다. 용현BM은 고객제일주의, 품질최우선주의를 바탕으로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기업, 꿈을 향해 도전하는 역동적인 기업,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글로벌 금속소재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2011 KEPIC-Week 전력산업 전시회 참가업체


 (주)옴니엘피에스

전력신기술 제28호 “뇌 보호 시스템의 트라이앵글 공법”

- ① 직격뢰 차단 : 쌍극자 피뢰침을 설치, 대지의 전하를 방전 분산시킴으로써 낙뢰의 근본적인 조건을 제거하여 직격뢰 차단
- ② 유도뢰 차단 : 서지보호장치(SPD)를 전원부와 통신부 인입라인에 설치함으로써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도뢰 차단
- ③ 통합 등전위접지 : 낙뢰 시 전위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보폭 전압 및 접촉 전압을 안전전압 이하로 충족시키기 위한 최선의 접지 방법으로 탄소 저저항 접지모듈을 이용한 저저항 접지 실현으로 더욱 완벽한 등전위 시스템으로 구성

⇒ 각종 유도뢰 및 직격뢰의 완벽한 차단으로 낙뢰에 의한 피해 감소

⇒ 트라이앵글 공법은 전위 상승을 억제하고 전위를 감소시킴으로써 장비의 중단 없는 운용과 인명의 안전 확보

⇒ 환경 친화적 제품 이용을 통한 오염 억제 역할



2011 KEPIC-Week 전력산업 전시회 참가업체



(주)부원비엠에스

BMS(BMS-COUPLER MECHANICAL SPLICE SYSTEM)

냉간 성형 전조평행나사이음(철근의 기계적 이음)

(주)부원비엠에스는 기계적 이음용 철근 커플러를 생산하는 전문기업이다. 이 제품은 원자력 현장에 납품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UAE, 싱가포르, 터키, 베트남에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 BMS는 건설현장에 쓰이는 철근을 연결하는 기계적 이음방식으로서, 철근의 끝단을 상온에서 스웨이징하여 동글게 성형한 후, 전조(롤링)에 의하여 나사를 성형하고, 암나사가 가공된 커플러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기계적 이음방법이다.

